

메시지 3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

성경 말씀: 딤후 4:8, 10, 18, 롬 12:2, 요일 2:15, 5:19b, 계 17:14; 22:20

- I. 만일 우리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것이다. — 딤후 4:8
 - A.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과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 — 고전 2:9, 딤후 4:8
 - B.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일 것이다. — 살전 1:10, 딤후 4:8
 - C. 주님의 나타남, 곧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경고와 격려와 자극제이다. — 딤후 4:1, 18
 1. 우리는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며 간절한 기대와 기쁨으로 고대해야 한다. — 계 22:20
 2.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도록 할 것이다. — 딤후 4:8; 계 17:14

- II.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요일 2:15
 - A. 세상은 사탄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열된 악한 체계이다. — 요일 2:15-17, 약 4:4
 1.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강탈하기 위해서, 문화와 교육과 산업과 상업과 오락과 종교 등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체계화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체계를 형성했다. — 엡 3:11, 창 1:26-28, 2:8-9, 4:16-24
 2.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인류와 관련된 것과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은 사탄에 의해 그의 어둠의 왕국으로 체계화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점유하고, 좌절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빛나가게 한다.—요일 2:15-17
 3.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요일 2:15-17, 약 4:4
 - B. ‘온 세상’ 곧 사탄적인 체계는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요일 5:19
 1. ‘온 세상’은 사탄적인 세상 체계와 세상 사람들, 곧 타락한 인류로 구성된다.
 2. ‘놓여 있다’는 것은 악한 자에게 강탈당하고 조종받는 영역 안에 수동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사탄의 강탈하고 조종하는 손 아래 수동적으로 놓여 있다.
 3.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악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치명적이고 해악을 끼치는 자를 가리킨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어 사람들을 사악하고 악독하게 만드는 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악한 자가 바로 사탄 곧 마귀이며, 온 세상이 그 안에 놓여 있다.
 - C. 사탄은 물질적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그의 머리 아래 통일할 것이다. 그때에 세상 체계는 그 정점에 이를 것이고, 세상 체계를 이루는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살후 2:3-12

III.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것은 현시대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된다. — 딤후 4:8, 10

- A. 한 시대는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한 부분, 한 방면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 시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하고 점유한다. — 요일 5:19; 2:15
- B. 디모데 후서 4 장 10 절에 있는 현시대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끌며,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다.
- C. 데마는 현시대를 사랑했다. 그는 현시대에 끌려서 사도를 저버렸다. — 딤후 4:10
- D. 로마서 12 장 2 절에서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당부한다.
 - 1. 이 시대는 현재의 시대와 실질적인 세상의 일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몸의 생활을 대적하고 몸의 생활을 대치하는 것이다. — 롬 12:4-5
 - 2. 이 시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지금의 이 시대의 현대적인 유행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변화는 바로 유기적인 요소를 우리의 존재 안에 넣음으로 안에서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롬 12:2; 고후 3:18
 - 3. 지금의 이 시대는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아서 안 된다. — 롬 12:2
 - 4.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자 한다면, 이 시대를 따라서는 안 되며, 이 시대를 본받아서도 안 된다. — 롬 12:4-5
- E. 만일 우리가 현시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편에 살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설 것이며 그분의 권익을 위해 싸울 것이다 — 딤후 4:1-2, 4-8, 10

IV.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길 것이다. — 고전 2:9; 딤후 4:8; 계 22:20; 17:14

- A.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장래 우리가 주님의 상을 얻는 조건이 된다. — 딤후 4:8, 18
- B.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할수록 더욱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 — 마 24:40-42; 살후 1:10; 3:6-12; 딤후 5:8
- C.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갈망 이어야 하며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고, 주님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구원받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는 자들으로써의 생활 이어야 한다. — 딤후 4:8, 18